

장성호 미락단지 '장어 정식거리' 만든다

군, 10억 투입 편의시설 확충·메뉴 개발 등 특화거리 조성 수변길·옐로우 출렁다리와 어울려 관광객 유입 효과 기대

장성호 미락단지에 '장어 정식거리'가 조성된다.

장성군은 전남도 시범사업인 '2019 남도음식거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9 남도음식거리 공모사업은 전남도가 지역 특화된 음식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특화거리 경관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소비자가 찾는 메뉴 개발 및 업그레이드, 음식점별接客서비스 시설 개선, 특화거리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도음식거리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군은 도비 포함,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성호 미락단지에 장어 정식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미락단지는 장성을 상오리 일원이며 이곳에는 15개 음식점이 자리잡고 있다.

군은 장어 정식거리가 완성되면 지역 관광명소인 장성호 수변길과 옐로우 출렁다리, 군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이 어우러지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호 수변길은 장성호 선착장부터 북이면 수성리까지 이어지는 7.5km 길이의 산책로다. 특히 호수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1.23km의 나무데크길과 호수를 가로지르는 156m의 옐로우 출렁다리가 관광객들로 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에서 장성호 개발을 주제로 공모를 신청, 선정됐다.

국비 포함, 총 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장성호 하류 구간에 강수욕을 즐길 수



장성군이 장성을 상오리 미락단지에 '장어 정식거리'를 조성해 관광객들의 입맛을 잡을 계획이다. 장성호 전경. <장성군 제공>

있는 강수욕장과 수상레저스포츠를 위한 계류장,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최근 장성호 수변길과 옐로우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장성군만의 특화된 음식메

뉴 개발에 집중해왔다"며 "미락단지 장어 정식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외식 문화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화순읍 수만리 습지공원 힐링 명소 '주목'

전통정자·연못 등 설치 자연친화적 공간 관광객 복직

이국적인 풍경으로 '화순의 알프스'로 불리는 화순읍 수만리 큰재 생태숲 공원에 조성된 습지 정원이 힐링 나들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사진>

화순군은 수만리 생태숲 공원 이용객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습지 정원을 조성했다.

올 2월 착공해 5월 초에 준공한 습지정원 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공모(사업비 5억원)에 선정돼 추진했다.

습지 정원에 전통정자 1동, 지형을 활용한 습지 연못 5개소, 목재 데크 관찰로 등을 설치했다.

연못 주변에는 계절별 화초류 3만본을 심어 수만리 철쭉공원과 함께 사계절 꽃

을 볼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했다. 정자 전망대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는 힐링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생태숲 공원에 있던 물웅덩이가 휴양·관광·자연학습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습지 정원으로 탈바꿈되면서 새로운 나들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만리 생태숲 공원 인근은 유아들의 자연 교감과 숲 체험을 위한 알프스 유아 숲 체험원, 월평군 3만여 명이 찾는 오감 연결길,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무등산 양떼목장 등 다양한 자원이 있어 산림관광 명소로 인기가.

화순=배영재 기자 byj@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복합문화예술공간 재탄생

도시예술·실험예술 공존

내달 1일 오픈...국제전 개최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이 도시예술과 실험예술이 담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한다.

30일 (재)담양군문화재단에 따르면 3년 여에 걸친 재생사업 및 파일러 프로그램 운영을 마친 해동주조장이 다음달 1일 '해동문화예술촌'이라는 정식 이름을 달고 지역민을 맞게 된다.<사진>

담양읍 지침리 일대 5225㎡(1500여평) 규모에 창고 10동, 주택 4동으로 구성된 해동문화예술촌에는 전시, 공연, 아트숍, 게스트하우스, 어린이 놀이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동주조장과 함께 매입된 교회에는 현대 음악, 영화, 실험 공간이 들어서고 창고들은 해동주조장 아카이빙 전시장과 카페 테리아, 아트숍, 어린이 놀이 도서관으로 활용된다.



또 주택은 국제레지던시 및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될 예정이다.

해동문화예술촌의 첫 전시로는 국제전 '도시 리듬과 예술적 행동'이 마련됐다.

6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두 달여동안 진행되는 이 전시는 송필용, 김성결, 노여운 등 현대미술작가를 포함해 세스(SETH),뤼도(LUDO) 등 국제 스트리트 아티스트 등 23명이 참여해 숲 도가(都家)의 공간적·역사적 경계를 고려한 실험

적인 과거-현재-미래의 공간을 보여준다. 지난 3월 예술총감독으로 선임된 양초롱 박사(현대미술사)는 "해동문화예술촌은 노동, 힘, 나눔이라는 전통적인 해동 주조장의 역할과 자율성과 창조성, 공공성의 예술 정신을 현대적으로 수용하며 출발했다"면서 "지역의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전국적인 문화 예술 복합공간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장성군, 정읍·고창군과 지역발전 방안 공동 모색

장성군이 인접한 전북 지역 사군과 공동으로 경제를 초월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유두석 군수와 유진섭 정읍시장, 유기상 고창군수가 지난 27일 고창 고인돌박물관에서 방장산 권역 사·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성·정읍·고창 3개 사·군은 현안 사업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정책협의회 추진방식 등을 논의했다.

장성군은 '갈매길 명성지정 및 방장산 연계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조선 시대 삼남대로(三南大路) 가운데 하나인 갈매길과 방장산 관광 인프라를 접목하는 아이디어다.

정읍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창 고인돌과 등재를 앞둔 장성 필암서원·정읍 무성서원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를 공동 개발하는 의견을 냈다.

고창군은 3개 사·군이 문화관광사업 전반을 공유 협력하는 안을 제시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군, 지역특화 맞춤형 벼 신품종 개발 박차

담양군이 지역특화 맞춤형 벼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숲맑은 담양

쌀'의 품격을 유지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벼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군은 딸기 신품종을 자체개발해 담양 딸기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으며, 벼,

루베리, 멜론 등의 품종개발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국립식량과학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담양의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벼 품종개발을 위해 연구를 수행해온 군은 지난 3년간 진행한 실증시험 결과 선발된 우량계통 중 수량, 미질, 밥맛을 평가해 그 중 가장 우수한 1계통(담양1호)를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담양 1호는 29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손모내기를 진행했으며 올해부터 4개 지역(담양, 나주, 전주, 익산)에서 3년간 지역적응 시험을 거쳐 오는 2021년 국립종자원에 품종을 출원할 계획이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화순군, 청년캠프 '휴과 함께' 참가자 20명 모집

화순군이 외지 청년들이 화순에서 한 달간 살아보는 청년캠프 '휴과 함께' 참가자 20명을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전남 이외 사·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다만, 전남도(화순 포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도 6명까지는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 모집은 선착순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오는 7월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청년캠프를 위탁운영하는 (사)화순군귀농귀촌협의회에 이메일, 전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캠프 참가자는 7월3일부터 8월1일까지 30일 동안 화순에서 직접 살면서 지역을 알아보고 경험한다. 참가자 전원은 동북면 불리스 펜션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도시에서 느낄 수 없었던 공유 생활과 시골 생활을 하게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화순군, 보호수 생육환경 점검 사업 추진

화순군이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해 생육 환경을 살피는 등 보호수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보호수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생육 불량목, 고사 우려목 등에 대한 외과 수술과 수관 정비, 콘크리트와 뿌리 부분 장애물 제거, 휴식 시설 설치를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매년 보호수의 생육 기능을 증진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보호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은 올해는 1억4000만원을 투입해 6월까지 3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현재 화순군이 지정·관리하는 보호수는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팽나무 등 308개소에 855본이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